

월간 주요 이슈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2. 4. 20.)

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

- 바닥매트, 수납가구 등 17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, 바닥매트, 완구,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~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.
-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 빈도가 높고(유아용 의류, 바닥매트, 가구 등), KC인증 수요가 증가(주방 전열기, 음식물 처리기 등)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.
- (리콜명령) 대상 17개 제품(어린이제품 12개, 생활용품 3개, 전기용품 2개)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☒ 생활용품 : 서랍장, 등산용로프 등

3개

(서랍장, 등산용로프 등: 3개 제품)

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,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

☒ 어린이제품 : 바닥매트, 아동 의류 등

12개

(바닥매트, 완구 등: 6개 제품)

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(폼아마이드)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,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젓꼭지 걸이 1개,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

(아동 의류: 6개 제품)

안감 코팅, 금속 조임쇠, 옷감 등에서 납,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(패딩조끼/바지/내복/슬리퍼/베개 각 1개),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

-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도,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, 여행용 가방,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